

'햇빛소득마을' 공모 대응 집중 아프리카돼지열병 원천 차단

임실군, 6단계 추진 로드맵 수립... 행안부 2500개소 조성 방침에 지자체 경쟁 본격화

임실군이 정부의 '2026년 햇빛소득마을' 공모 사업에 대비해 발 빠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군은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준비하며 겪을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6단계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밀착 지원에 나섰다.

'햇빛소득 마을'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공공 시설이나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주민 참여형 에너지 프로젝트를 말한다. 정부는 올해 전국 500개소 조성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총 2,500개소의 햇빛소득마을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31일 행정안전부의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모'가 공식 발표되면서 지자체 간의 경쟁도 본격화됐다.

행안부 공모 접수는 1차(5월 31일 마감)와 2차(7월 31일 마감)로 나누어 진행되며, 특히 조직 구성부터 사업 부지 확보, 전력 계통 연계, 자금 조달 방안까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해야 하는 만큼 임실군의 체계적인 로드맵 지원이 공모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신청해야 하는 공모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동의 △협동조합 설립 △부지



임실군이 정부의 '2026년 햇빛소득마을' 공모 사업에 대비해 발 빠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사진은 마을별 사업설명회 모습.

발굴 및 계통 연계 △사업 인·허가 △자금조달 계획 수립 △사업 신청으로 이어지는 '6단계 추진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로드맵의 첫 단추인 '1단계 읍면 사업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를 통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47개 마을을 확정 지었으며, 현재 실무적인 사업 주체인 마을 협동조합 설립을 돕기 위한 2단계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오는 16일 임실행복나눔센터에서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설립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교육은 임실군과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인 임실군 마을가꾸기협의회(이사장 전종태)가 협력하여 마련했으며, 주민들이 생소하고 복잡한 조합 설립 절차를 쉽게 이해하여 공모 준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

춘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햇빛소득마을 사업 공모 상세 안내 △단계별 협동조합 설립 절차 △햇빛소득마을 표준정관(안) 활용 방법 및 사업 준비 시 유의사항 등 철저한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마을 주민들이 사업 계획 수립부터 신청까지 자생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3단계는 국·공유지 유휴부지 발굴 및 원활한 전력 계통 연계를 위해 관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하게 업무협의를 시작한다.

사업공모 및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경제교통과 햇빛소득팀(063-640-2451)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방역관리 대폭 강화

남원시는 봄철 본격적인 영농활동과 등산객 증가, 야생멧돼지 출산기에 따른 개체수 급증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ASF는 지난 2019년 국내 첫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3월 중순까지 전국 양돈농장에서 총 24건이 보고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야생멧돼지 항원 검출 지역이 점차 남하·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남원시는 지리적 특성상 소백산맥을 따라 멧돼지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 방역 긴장감이 한층 높아진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인위적인 전파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방역 시스템을 촘촘히 재정비한다.

우선 가축 및 분뇨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GPS를 활용해 이동 동선과 거점소독시설 방문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 이를 통해 소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의 농장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차량 방역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농가별 맞춤형 방역 점검과 전화 예찰을 수시로 실시하고, 축산농가 전용 소통방을 운영해 최신 방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양돈농가와 축산차량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을 방송, 문자 메시지, 알람톡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거점소독시설 경유를 독려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공약이행평가 3년 연속 '최우수'

순창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26 전국 기초지자체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3년 연속 SA(최우수)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매년 최고 등급을 유지한 성과로, 순창군이 공약이행 분야에서 전국 수자위공사,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하게 업무협의를 시작한다.

실제 순창군의 공약이행 성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2026년 1분기 기준 공약사업 점검 결과, 전체 79개 공약 중 68개를 완료해 공약완료율 86.1%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전국적으로 민선8기 공약완료율(70.42%)이 민선7기 공약완료율

(71.72%) 보다 소폭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순창군은 오히려 높은 이행률을 유지하며 차별화된 성과를 나타냈다.

이 같은 성과는 민선 8기 들어 구축된 체계적인 공약관리 시스템과 지속적인 점검·보완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순창군은 정기적인 공약 이행 점검과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왔다. 특히 공약을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군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책으로 구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한편, 순창군은 민선8기 마무리 단계에서도 안정적인 공약이행 관리와 성과 확산을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순창=이원원 기자

순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최종 선정

순창군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군민 평생학습 기반 확대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를 포함한 총 4천 3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초문해교육부터 디지털 활용 교육까지 아우르는 실생활 중심 문해교육을 본격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크게 △기초문해교육 △디지털문해교육 △생활문해교육 등 3개 분야로 구성된다. 먼저 기초문해교육은 기존 6개소에서 운영되던 교육



장을 10개소로 확대해 더 많은 군민들이 가까운 생활권 내에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문해교육, 실생활 활용도를 높인 생활문해(영어) 교육도 운영해 다양한 학습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순창=이원원 기자

남원시, 29일까지 사회조사 실시

남원시가 시민의 삶의 질과 주관적 의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026년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매년 시행되는 사회조사는 시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생활 수준을 진단하여, 향후 시장 운영 및 지역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대상은 관내 표본으로 선정된 1,005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방식은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응답자가 직접 내용을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조사를 병행한다.

조사 항목은 △주관적 웰빙 △건강(의료) △사회통합 △안전 △환경 △가구·가족 △남원시 특성항목 등 총 7개 부문 50여 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 생활 전반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전문적인 통계 분석을 거쳐 12월 말 전북특별자치도 통계시스템과 남원시 누리집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폐회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사진))가 지난 10일 제27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남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지역 발전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다졌다.

김영태 의장은 임시회를 폐회하며, "4월 10일은 임시의정원이 개원한 지 107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라며, 나라를 되찾고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운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이 오늘날 의회가 나아갈 방향임을 강조했다.



라고 밝혔다.

이어 "남원시의회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사적 책무를 되새기고 시민의 뜻을 받들어,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농원원남원사무소, 하계작물 정기변경신고기간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남원사무소(이하 남원농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농업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며, 등록 농업인은 농지정보·재배품목·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이 바뀌면 의무적으로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등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될 예정으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이번 하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하여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농업경영체 변경 신고는 가까운 남원농원원을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농원원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1644-877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농기계임대사업소 6월까지 토요일도 운영

임실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의 정기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확대한다.

군은 농번기 임대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매주 토요일에도 정상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4개소에서 총 22종 817대의 농기계를 평일과 동일하게 임대할 수 있다.

특히 관리기 등 16종 43대의 임대 농기계를 추가 확보하여 농업인들이 다양한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적기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아울러 오는 12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지속 추진하며, 이와 함께 잔가지 파쇄기 무상 임대를 실시하고,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